

## 재미 한인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bstance Use Among  
Korean-American Adolescents in the USA

한영옥(Young Ok Han)<sup>1)</sup>

### ABSTRACT

The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301 Korean-American students in grades 6 to 12.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most of the risk factors in all domains demonstrated a strong relationship to the use of alcohol, tobacco, and other illicit drugs. In the community domain the most common risk factor was “laws favorable toward drug use”(60.2%); this risk factor increased the odds of substance use by approximately 3 times. The protective factor, “opportunity for positive involvement” in school domain reported by 82% of the sample decreased the probability of substance use by 3 times. The percentage of students “resilient” on all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domain was much lower than that of protective factors in other domains. The strongest predictors of substance use were shown in the peer-individual domain.

**Key Words** : 약물사용(Substance Use), 청소년(Adolescents), 위험요인(Risk Factor),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 I. 서론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음주와 약물 사용의 문  
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미 남  
용되고 있는 약물 또한 다양하며, 더우기 약물  
사용의 시작 나이가 점점 더 어려워 10세 이전에  
약물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는 등 약물사

용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이기정,  
2000; 청소년학회, 1997). 청소년기의 약물 복용  
은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그들  
의 정신 및 신체건강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등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  
각하다. 또한 약물 남용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  
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 있어(민병근·김현수,

<sup>1)</sup>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Corresponding Author** : Young Ok Han, Seoul Women's University 126 Kongnung-2 Dong Nowon-Gu Seoul  
139-774, Korea E-mail : hyo8116@hanmail.net

1978; Kaplan & Sadock, 1998)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따르면, 약물과 알콜남용으로 인해 매년 12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나 기타 다른 사고, 타살과 자살이 청소년기 사망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Morbidity & Mortality Weekly Report [MMWR], 1998). 1997년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에 의하면 이런 사망들은 종종 음주나 불법 약물남용과 같은 건강위험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립마약규제정책국이 12세 이상 청소년 약 7만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약물남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재미한인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률이 아시아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Wright, 2002). 이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한번 이상 마리화나 등 불법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는 한인 청소년 숫자는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의 9.5%로 일본(8.3%) 베트남(6.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약물복용 실태를 인종별로 보면 아메리칸 인디언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푸에르토리코(16.3%) 흑인(12%) 백인(11.3%), 멕시코계(10.3%) 한인(9.5%) 순으로 밝혀져 한인 청소년들의 약물복용 상태가 비교적 심각하다.

아동의 가장 취약한 시기는 한 발달단계에서 다른 발달단계로 성장할 때라고 일부 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전환 단계는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로 발달함에 따라 특정 보호요인에 대한 효과가 변화하거나 쉽게 사라질 수 있다(Smith, Lizotte, Thornberry, & Krohn, 1995). 이러한 점을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볼 때, 약물 사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전환단

계 동안에 저항력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 발달단계에서 이러한 취약성과 더불어 적응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십대들이 알콜, 담배와 기타 약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모두가 약물남용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Donovan & Jessor, 1985). 즉, 적응탄력성의 개념은 “약물사용”과 “약물남용”을 구별해줄 수 있다. 약물남용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준거는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시작연령, 의존수준,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의 효과 등이다 (Newcomb & Bentler, 1989) 따라서 약물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 전략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적응탄력성, 또는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것과 취약성, 또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간의 일치된 견해이며,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청소년의 알콜과 기타 약물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Hawkins, Catalano, & Miller(1992)는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사용, 비행행동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행동양상이 조사되어야 하며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은 환경의 다양한 여러 영역들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은 4개의 기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즉 지역사회요인(예 : 약물에 대한 지역사회의 법과 기준들), 가족요인(예 : 가족간 애착의 수준), 학교요인(예 : 학업실패), 개인 및 또래요인(예 : 약물의 시작 연령과 친구의 영향) 등이다. Catalano (2001)는 “청소년 발달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키고 문제행동을 막기 위해서 긍정적 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은 감소시키는 이 요인들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기 약물남용은 자살행동(Borowsky, Ireland, & Resnick, 2001; Lester, 1999), 학업성적의 저하 및 학교중퇴(Braggio & Pishkin, 1999; Eggert & Herting, 1993), 성적 공격행동(Borowsky, Hogan & Ireland, 1997), 학습부진(Weinberg, 2001), 비행행동(Brener, Simon, Krug & Lowery, 1999; Elickson, Saner, & McGuigan, 1997; Goldstein, 1985; Saner & Elleckson, 1996)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약물남용예방센터(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 CSAP)에서 실시한 횡단적 평가 연구에서 약물남용의 시작은 다른 영역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상당히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CSAP, 1997). 즉,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떨어지거나 자신이 학업에 실패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 약물남용은 해가 별로 없고 유익하다고 믿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약물사용을 시작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알콜, 담배, 기타 약물 사용 대한 부모의 태도와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성이 높으며, 가족간의 유대가 친밀할수록 약물남용을 하지 않고 있다.

잠재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보호요인들에 대한 예방정책 및 프로그램의 출현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사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Hawkins 등, 1992; Hawkins, Arthur, & Catalano, 1997; Newcomb & Felix-Ortiz, 1992). 보호요인들은 약물사용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탄력성, 강한 가족간의 유대, 지지적인 가족 환경, 문제해결기술,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 등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보호요인들이

다(Hawkins 등, 1992, 1997; Kandel 등, 1986; Newcomb & Felix-Ortiz, 1992). Hawkins 등(1992)은 사회발달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은 위의 입증된 보호요인이 약물남용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가족, 학교, 또래간의 유대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약물남용과 역상관 관계가 있는 사회적 유대의 4가지 기본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그것들은 강한 부모와의 애착, 책임있는 학교생활, 정기적인 교회 활동,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기준 및 가치에 대한 믿음이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호요인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 보호요인의 수가 더 많을수록 보호요인의 효과는 더 크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재미 한인 중고등학생들의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평가하고 그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가 재미 한인 학생들의 약물사용의 특징과 약물사용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을 밝힘으로써 현재 유학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약물사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재미 한인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을 예방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크게 다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한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비율을 각 영역(지역사회, 학교, 가족, 개인 및 동료영역)의 하위영역 별로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로 각 영역(지역사회, 학교, 가족, 개인 및 동료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약물남용은 위에서 제시한 4개 영역(지역사회, 학교, 가족, 개인 및 동료영역)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상당히 상관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각 영역(지역사회, 학교, 가족, 개인 및 동료영역)에서 해당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위험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각 영역(지역사회, 학교, 가족, 개인 및 동료영역)에서 해당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보호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들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재미 한인 청소년 6학년부 터 12학년 사이의 남녀학생이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등 4개주의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청소년 6학년부 터 1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30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21부가 수거되었는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1명을 연구대상자로 채택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한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위의 4개 주를 대상으로 삼았고, 먼저 대형교회와 한인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검사에 동의한 곳만을 선택하여 검사지가 배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인 동의 과정(active consent process)을 거쳤는데, 즉 부

〈표 1〉 대상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N	%
전체 대상자	301	100%
<u>성별</u>		
남자	160	53.5%
여자	139	46.2%
무응답	2	0.7%
<u>출생지</u>		
미국	192	63.8%
한국	108	35.9%
무응답	1	0.3%

모의 동의를 얻은 학생들에게만 질문지가 배포, 실시되었다. 이렇게 능동적인 동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사지 수거율이 낮았다(약 40%). 설문지는 한인학교와 한인 교회의 교사들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실시기간은 2003년 5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였고,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워싱턴 대학 소재의 사회 발달연구소(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에서 개발한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의 유병률 및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라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Hawkins 등, 1997). 이 설문지는 원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미국의 6개주 컨소시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1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되어 있어 미국내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설문지는 크게 3가지 즉, 개인 신상에 대한 척도, 약물사용 척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척도로 나뉘어져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척도

에는 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 가족영역, 개인 및 동료영역, 등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 항목에서 높은 점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반대로 보호요인 항목에서의 높은 점수는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이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이 질문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척도와 변인들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 3. 자료분석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척도들은 각각의 하위영역을 채는 문항들(예 : 학교영역에서 학교결석을 채는 문항이 18, 22, 23번임)의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구한 후 이 값이 중앙치 이상을 넘으면 위험요인을 갖고 있거나 보호요인을 갖고 있다고 결정한다(연구문제 1). 각 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2).

로짓회귀분석에서 구해진 값 odds ratio(OR)가 1 이상이면,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이 위험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에 비해 약물사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말해주며, 반대로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은 보호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에 비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말한다. 즉, 학교영역의 하위요인중의 하나인 “학교결석”에서 OR 값이 3이라면, 이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학교결석을 채는 문항들의 합에서 중앙치 이상을 얻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지난 한 달동안 약물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3 배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Ⅲ. 결 과

### 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표 2>부터 <표 5>까지는 건강 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4개의 영역, 즉 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 가족영역, 개인 및 동료영역 별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약물사용과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의 관련성이 odds ratio로 제시되어 있다. 즉, 대상 청소년이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비율과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비율을 각 영역의 하위척도별로 제시하였으며,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지난 한 달동안 약물을 사용했는 또는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예언이 odds ratio 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에서 첫째로, 재미 한인 청소년들이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비율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각 영역별로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지난 한 달 동안 약물 사용과의 관련성에 대해 각 영역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사회 영역

첫째로, 지역사회 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의 비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0%가 이 하위영역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었다. 두 번째로 흔한 위험요인은 “약물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었다(표 2). 이 두 위험요인은 약물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 및 규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인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법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

〈표 2〉 지역사회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와 odds ratio)

지역사회요인	전 체 %	지난 한 달 동안의 약물사용 (odds ratio)		
		알 콜	담 배	기타 불법약물
<b>위험요인</b>				
낮은 이웃애착	38.2%	1.426	1.635	1.631
지역사회 비조직화	8.2%	3.412*	7.067*	3.966*
개인의 변화 및 이동	23.5%	1.441	2.780*	2.078
지역사회의 변화 및 이동	34.5%	1.086	1.293	1.566
약물사용의 규준에 대한 호의성	9.6%	5.923*	5.347*	9.394*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	60.2%	2.570*	2.839*	2.496*
약물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지각	39.4%	3.592*	7.215*	10.279*
<b>보호요인</b>				
집회 및 클럽활동의 기회	62.0%	1.887*	2.324*	2.516*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	31.4%	1.052	1.509	1.962

\* $p < 0.05$ 

도가 별로 엄격하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각한다(39.4%)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호요인들 가운데 “집회 및 클럽활동의 기회”를 응답자의 62%가 보호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지역사회 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지난 한 달동안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요인 중 여러 위험요인이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이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그 중 지난 한 달동안의 약물사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은 “약물사용의 규준에 대한 호의성”과 “약물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지각”이었다. 즉 이러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지난 한 달동안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이 3.4배에서 10.2배까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타 불법약물과 “약물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지각”(10.2배) 과의 관계, 기타 불법약물과 “약물사용의 규준에 대한 호의성”(9.4배) 과의 관계, 담배 사용과 “약

물사용의 규준에 대한 호의성”(7배)과의 관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기타 불법약물이라 함은 마리화나, 코카인, 환각제 또는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낮은 이웃 애착”이나 “지역사회의 변화 및 이동”의 위험요인과 지난 한달 동안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과의 관련성은 의미가 없었다.

한편, 보호요인에서는 “집회 및 클럽활동의 기회”요인이 지난 한 달동안 알콜, 담배,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즉 이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지난 한달동안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의 비사용이 1.8배에서 2.5배까지 높다고 볼 수 있다.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 요인은 약물사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2) 학교 영역

학교 영역에서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표 3>에 제시되어

〈표 3〉 학교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와 odds ratio)

지역사회요인	전 체 %	지난 한 달 동안의 약물사용 (odds ratio)		
		알 콜	담 배	기타 불법약물
<b>위험요인</b>				
학업 실패	8.6%	1.821	4.225*	5.400*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음	45.8%	1.630	4.167*	5.985*
학교결석	2.4%	2.871	11.905*	7.620*
<b>보호요인</b>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	81.9%	1.466	2.829*	2.829*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	53.5%	1.640	2.435*	1.914

\* $p < 0.05$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음”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45.8%로 가장 높았다. 그 밖의 “학업실패”, “학교결석”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각각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인 학생들의 학교영역의 위험요인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호요인에서는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를 보호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82%이었는데, 이 요인은 4개 영역의 보호요인 중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보호요인이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활동을 결정하는 기회, 방과후활동, 교사와의 대화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 영역에서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모든 위험요인들과 지난 한 달간의 알콜사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위험요인들과 담배 및 기타 불법약물 사용과의 관련성은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결석”요인과 담배사용과의 관계(11.9%), “학교결석”요인과 기타 불법약물 사용과의 관계(7.6%)가 특히 높았다.

둘째로 학교영역에서의 모든 보호요인과 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은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인 활동의 기회”의 보호요인과 기타 불법약물 사용과의 관련성도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가족 영역

가족영역에서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았다(표 4). 먼저 위험요인을 보면, “약물사용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를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4.1% 로 가장 낮다. 즉 한인 청소년들이 지각하기에 자신들의 부모들이 약물사용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인 청소년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가족영역의 위험요인으로 “빈약한 훈련”(33%)이었다. 이는 한인 청소년의 부모들이 바쁜 이민사회에서의 생활로 인해 자녀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다소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를 지지하는 바로는 가족영역의 모든 보호요인에서는 학생들이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가족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와 odds ratio)

지역사회요인	전 체 %	지난 한 달 동안의 약물사용 (odds ratio)		
		알 콜	담 배	기타 불법약물
<b>위험요인</b>				
빈약한 가정	17.8%	1.474	2.789*	5.178*
빈약한 훈련	33.3%	1.886*	2.610*	2.511*
갈등	23.2%	2.119*	3.351*	3.168*
반사회적 행동의 경력	11.2%	9.318*	8.861*	5.518*
약물사용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4.1%	12.905*	13.677*	14.991*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4.1%	5.757*	13.677*	14.991*
<b>보호요인</b>				
친사회적 활동의 기회	49.7%	1.814*	3.513*	2.251*
가족 애착	50.3%	1.578*	3.141*	2.299*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	49.7%	1.625	2.937*	1.582*

\* $p < 0.05$ 

이는 다른 세 영역의 어떤 보호요인 보다 낮은 비율이다(단 지역사회영역에서 “집회 및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31.4%) 보호요인을 제외하고).

가족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위험요인의 경우, “빈약한 가정관리” 요인과 알콜 사용과의 관계만 제외하고 모든 가족영역의 위험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련이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부모의 호의적인 태도” 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 요인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지난 한 달 동안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이 12.9배에서 14.9배까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4).

보호요인의 경우는 담배사용과 가족영역의 모든 보호요인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9%에서 3.5%까지).

#### 4) 개인 및 동료 영역

개인 및 동료영역에서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

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과,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알수 있는 odds ratio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 및 동료영역에서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미 한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위험요인은 “반항성”(22.1%), “약물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지각”(18.9%), “감각추구”(16.3%), “충동성”(14.6%) 순이었다. 한편, 보호요인의 경우 “도덕질서에 대한 신념”, “사회적 기술”이 각각 81.5% 와 78.3%로, 이 요인들을 보호요인으로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즉 보호요인의 경우 한인 청소년들은 다른 3개 영역 즉,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에서의 보호요인보다 “도덕질서에 대한 신념”, “사회적 기술” 같은 개인의 적응탄력성이 높으며, 다른 보호요인의 효과보다는 개인영역의 보호요인 효과가 약물사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개인 및 동료영역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 개인 및 동료 영역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와 odds ratio)

지역사회요인	전 체 %	지난 한 달 동안의 약물사용 (odds ratio)		
		알 콜	담 배	기타 불법약물
<b>위험요인</b>				
반항성	22.1%	4.234*	3.190*	5.475*
약물사용의 시작이 빠름	6.0%	23.464*	17.353*	11.636*
반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빠름	1.3%	978.870	628.88	119.151
충동성	14.6%	1.741	2.858*	3.319*
반사회적 행동	1.4%	961.884	983.04	572.128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12.7%	3.011*	5.171*	5.076*
약물사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9.4%	5.288*	10.151*	9.827*
친구의 약물 사용	7.0%	3.000*	9.431*	5.028*
약물사용의 위험에 대한 지각	18.9%	2.287*	3.650*	5.121*
반사회적 활동에 대한 또래 보상	9.9%	4.180*	6.040*	7.847*
반사회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	2.0%	7.667*	17.206*	19.407*
감각추구	16.3%	3.595*	4.715*	8.332*
<b>보호요인</b>				
도덕 질서에 대한 신념	81.5%	4.581*	5.015*	4.560*
사회적 기술	78.3%	8.333*	11.590*	11.266*

\* $p < 0.05$ 

그 결과 “반사회적 행동의 시작이 빠름”과 “반사회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계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성의 정도에 있어서 다른 3개 영역과 약물사용과의 관련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사용의 시작이 빠름”, “반사회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 “약물사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약물사용과 가장 강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요인들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지난 한 달 동안 알콜, 담배,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이 5배에서 23배까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호요인의 경우, “사회적 기술”을 보호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지난 한 달 동안 알콜, 담배, 기타 불법약물의 비사용이 8배에서 11배까지 높았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재미 한인 청소년들의 알콜, 담배 및 기타 약물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특징을 살펴보고, 약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약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내에서 특정 소수민족에 대한 약물사용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가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한 연구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과 그것이 갖는 함의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4개 영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위험요인과 지난 한달동안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 사용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vans 등(2002), Greene, Rachal (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보호요인의 경우 4개 영역에 있는 보호요인의 반수 정도만이 약물 비사용과의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4개 영역의 모든 보호요인이 약물 비사용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Evans 등(2002), Greene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한편, 지난 한달간 약물을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서의 위험요인의 갯수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p=0.003$ 에서  $p=0.000$ 까지). 즉 지난 한 달동안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갯수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의 갯수에 비해 더 많았다. 그러나 보호요인에서는 약물사용 집단과 약물 비사용 집단간의 보호요인의 갯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위험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지난 한 달간 알콜, 담배 및 기타 불법 약물을 더 자주 사용하였으나, 보호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지난 한 달간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을 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한인 청소년의 경우 위험요인과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이 보호요인과 약물 비사용의 관련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인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의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고 강조되어야 할 같다.

둘째로,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은 지역사회 영역의 “약물사용에 대한 법적인 호의성”(60.2%)이었는데, 이 요인

을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은 지난 한달 동안 알콜, 담배 또는 기타 불법약물의 사용이 약 3배 정도 높았다. 그 다음으로 흔하게 갖고 있는 위험요인은 학교영역의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않음”(46%) 이었다. 이는 Evans 등(2002)의 연구에서 보인 25%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한인 학생들이 다른 민족의 학생들보다 학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셋째로, 한인 청소년들의 82% 정도가 학교영역의 보호요인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기회”를 보호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등 4개 영역의 보호요인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 요인은 약물 사용의 가능성을 약 3배 가량 낮추고 있다.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외하고, 개인영역의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비율이 다른 3개 영역에서 보호요인을 갖고 있는 비율보다 높았다.

넷째로, 한인 청소년들이 가족영역의 보호요인들을 보호요인으로 갖고 있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다른 영역의 보호요인들보다 낮았으며, Evans 등(2002)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최대 3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 보호요인이 약물사용의 가능성을 1.8배에서 3.5배까지 낮추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인 청소년의 가족을 개입하는 예방 분야에서는 가족 애착, 가족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의 확대 같은 가족영역의 보호요인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다. Gray & Booker (1992)는 예방분야에서 전형적인 위험요소나 결합보다는 가족의 강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의 강조에서 가족의 강점을 강조하는 관점은 특히 한인 청소년의 가정에 더 적합하며 중요한 것 같다.

다섯째로, 약물사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인

요인은 개인 및 동료영역으로 나타났다. “반항성”, “약물사용의 위험에 대한 지각”, “감각추구”가 한인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위험요인이었다(각각, 22.1%, 18.9%, 16.3% 순). 이 요인들을 위험요인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약물사용의 가능성은 2배에서 8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물질사용의 시작이 빠름”, “약물사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반사회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개인 및 동료영역 중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한 요인들이었는데, 이 요인들을 위험요인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약물사용의 가능성이 5배에서 23배까지 높다. 그 중 “반사회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한인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으로 갖고 있는 비율은 2%로 매우 낮았지만 약물사용과의 관계면에서는 상당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이 요인이 약물사용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강력한 변인임을 알수 있었다. 이 영역의 보호요인 역시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4.5배에서 11.5배까지 약물사용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동료영역의 “반사회적 행동” 요인은 어떤 약물사용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과 약물사용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점을 고려할 때(Anglin & Speckart, 1988; Ellickson, Saner, & McGuigan, 1997; Grungau, Basen-Engquist, & Pandey, 1998; Wiczorek, Walter, & Abel, 1990), 추후연구에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표본과 대표성의 문제이다. 표집된 사례가 301명으로 안정된 분석의 충분한 표집의 크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단지 4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교를 중퇴

했거나 입원하고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표집과정에서 특정한 종교와 교육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학생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연구방식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응자들이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과장 또는 과소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정보를 기억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편향(self-section bias)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학년, 부모의 교육수준,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더라면 그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과의 의미있는 관련성을 볼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나 그렇게 하기에는 표본이 크지 않아 이러한 정보가 제시되지 못한 제한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민병근·김현수(198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신경정신의학*, 26, 605-613.
- 이기정(2000). 약물남용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청소년학회(1997). 약물남용청소년 예방활동 연구집. 서울 : 문화체육부·청소년보호위원회.
- Anglin, M., & Speckart, G.(1988). Narcotics use and crime : A multisample, multimethod analysis. *Criminology*, 26, 197-233.
- Borowsky I. W., Ireland M., & Resnick. M. D.(2001). Adolescent suicide attempts : Risks and protectors. *Pediatrics*, 107, 485-493.
- Borowsky I. W., Hogan M., & Ireland M.(1997). Adolescent sexual aggression : risk and protectors. *Pedi-*

- atics*, 100, 71-78.
- Braggio, J. T., & Pishkin, V.(1993). Academic achievement in substance-abusing and conduct-disordered adolescents. *Clinical Psychology*, 49(2), 282-291.
- Brener, N. D., Simon, T. R., Krug, E. G., & Lowry, R. (1999). Recent trends in violence-related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2, 440-446.
-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1997). *Selected findings in prevention : A decade of results from the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Division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Evaluation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Washington, D. C. : 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Catalano, R. F.(2001, August). *Understanding community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econd National Conference on Drug Abuse Prevention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Washington, DC :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 Donovan, J., & Jessor, R.(1985).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890-904.
- Eggert, L. L., & Herting, J. R.(1993). Durg involvement among potential dropout and "typical" youth. *Journal of Drug Education*, 23, 31-55.
- Ellickson, P. L., Saner, H., & McGuigan, K. A.(1997). Profiles of violent youth : Substance abuse and other concurrent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 985-991.
- Evans, C. J., Novak, M. A., & Daltro, M. A.(2002, June). *Substance use, delinquent behavior, &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students in the state of Missouri : 2002*(prepared for the state of Missouri, Division of Alcohol and Drug Abuse).
- Goldstein, P. J.(1985). The drugs-violence nexus : Atripartite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Drug Issue*, 15, 493-506.
- Gray, L. E., & Booker, C. B.(1992). Empowering African Americans to achieve academic success. *NASSP Bulletin*, 76, 50-55.
- Greene, J. M., Rachal, J. V.(2001 Feb). *Substance use, delinquent behavior, &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students in the state of Missouri : 2002* (prepared for the state of Missouri, Division of Alcohol and Drug Abuse). Research Triangle Park, NC : Research Triangle Institute.
- Grunbaum, J. A., Basen-Engquist, K., & Pandey, D. (1998). Association between violent behaviors and substance use among Mexican-American and non-Hispanic whit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3, 153-159.
- Hawkins, J. D., Catalano, R. F., & Miller, J. Y.(199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lcohol and other dru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 Implications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1), 64-105.
- Hawkins, J. D., Arthur, M. W., & Catalano, R. F. (1997). *Six state consortium for prevention needs assessment studies : Alcohol and other drugs* (final report for the Center for Substance Abuse Prevention). Seattle, WA : University of Washington,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 Kaplan H. I., Henrichs T. F., Reid, J. C., & Huff, C. (1982). Depression in diagnostic subtypes of delinquent boys. *Adolescence*, 17, 943-949.
- Lester, D.(1999). suicidality and risk taking behaviors : an ecological study of youth behaviors in 29 states. *Perception and Moter Skill*, 88(3).
- Morbidity & Mortality Weekly Report(MMWR). (1998). *Surveillance Summaries*, (47), SS-3. Atlanta, GA : Center for Disease Control, Office of Communications.
- Newcomb, M. D., & Felix-Ortiz, M.(1992). Multiple protective and risk factors for drug use and abuse :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80-296.

- Saner, H., & Ellickson, P.(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2), 94-103.
- Smith, C., Lizotte, A. J., Thornberry, T. P., & Krohn, M. D.(1995). Resilient youth : Identifying factors that prevent high- risk youth from engaging in delinquency and drug use. In Hegan (Ed.), *Delinquency and disrepute in the life course*(pp217-247). Greenwich, CT : JAI Press.
- Weinberg, N.(2001). Risk factors for adolescent substance abus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4*(4), 343.
- Wieczorek, W. F., Walter, J. W., & Abel, E. L.(1990). Alcohol, drugs and murder : A study of convicted homicide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8*, 217-227.
- Wright, D.(2002). *State Estimates of Substance Use from the 2000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Abuse : Volume I. Findings*(DHHS Publication No. SMA 02-3731, NHSDA Series H-15). Rockville, MD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Office of Applied Studies. Wide Web at <http://www.sambhs.gov/oas/nhsda.htm>

---

2004년 12월 31일 투고 : 2005년 2월 19일 채택

## 〈부록 1〉

## Risk and Protective Factor Scales and Variables

## COMMUNITY DOMAIN

<u>Risk Factors</u> Name	Description	Questionnaire items
Low neighborhood attachment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feel a part of their neighborhood(whether they feel that what they do makes a difference)	85, 87
Community disorganization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people in the community take part in decisions or processes that affect their lives	89a-d, 95
Personal transitions and mobility.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have changed homes or schools	90, 94, 96, 98
Community transitions and mobility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feel that people move in and out of their neighborhood	90
Norms favorable toward drug use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perceptions of community norms regarding substance use	83[a-c], 84[a-d]
Laws favorable toward drug use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community norms regarding substance use	76, 78, 82
Perceived availability of drugs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availability or access to alcohol, drugs, or firearms	74, 75, 77, 81
<u>Protective Factors</u> Name	Description	Questionnaire items
Opportunities for conventional involve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perceptions of the extent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93[a-e]
Rewards for conventional involve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perceptions of the extent of rewards for posi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86, 92, 99

## SCHOOL DOMAIN

<u>Risk Factors</u> Name	Description	Questionnaire items
Academic failure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e., grades in school, perception of their own grades compared to those of others)	13, 23
Little commitment to school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felt that school was important and meaningful	25, 26, 27, 28[a-c]
School absenteeism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reported being absent from school	14[a-c]
<u>Protective Factors</u> Name	Description	Questionnaire items
Opportunities for positive involve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ha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chool activities.	15, 16, 18, 19, 24
Rewards for conventional involve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were rewarded for positive participation in school activities	17, 21, 22

## FAMILY DOMAIN

<u>Risk Factors</u> Name	Description	Questionnaire items
Opportunities for prosocial involve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family activities	115, 120, 122, 118,119
Family Attach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attachment to family members.	113, 114, 117, 121
Rewards for prosocial involve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rewarded by their family for positive activities	112, 116,

## PEER - INDIVIDUAL DOMAIN

<u>Risk Factors</u> Name	Description	Questionnaire items
Rebelliousness.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of rebelliousness (e.g., ignoring rules)	32, 35, 47
Early initiation of substance use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began using substances and participating in problem behaviors at an early age	30[a-d]
Early initiation of anti social behavior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began participating in problem behaviors at an early age	30 [e-i]
Impulsiveness.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of impulsiveness (e.g., not thinking before acting, switching from one activity to another)	48, 49, 50, 51
Antisocial behavior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have been involved in antisocial behaviors, such as being suspended from school, stealing, or fighting	40[a-d, f-h]
Favorable attitudes toward antisocial behavior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believed that participating in antisocial behaviors was acceptable	31[b-e]
Attitudes favorable toward drug use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believed that using substances was acceptable	31[f-i]
Friends' substance use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ir friends used alcohol or drugs	29[a-d]
Perceived risks of drug use.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52[a-d]
Peer rewards for antisocial involvement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y were rewarded by their peers for participating in antisocial behaviors	41[a-c]
Interaction with antisocial peers	This scale describes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xtent to which their friends participated in antisocial behaviors.	29[e-k]
Sensation seeking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did things on a dare or did things that were dangerous	37[a-c]
<u>Protective factors</u> Name	Description	Questionnaire items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displayed social skills (e g, being able to say "no" to friends, listening to parents)	42, 43, 44, 45
Social skills	This scale describes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believed in moral order (e g, telling the truth even if it got them in trouble, thinking that cheating is acceptable)	33, 34, 36, 46
Belief in the moral order		